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담론

The Discourses on the Humanities Banque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I. 서론	2. 인문학 강좌의 지형과 구조
II. 인문학의 개념적 확대 및 변용	IV.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실천적 담론
1. 인문학의 기원과 개념적 확대	1. 인문학 향연의 실체와 현주소
2. 인문학의 재해석과 사회적 변용	2. 인문학 향연의 본령과 과제
III.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의 이론적 담론	V. 요약 및 결론
1. 인문학 강좌의 배경과 동인	

초 록

한국에서 인문학은 최대 화두 중의 하나이다. 공공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매스컴,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인문학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한 베이스캠프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에 대한 담론을 이론적 및 실천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전자는 학문적 본령, 지구촌의 거시적 및 미시적 담론, 사회경제적 과장, 정신문화적 진화의 측면에서 전개하였다. 후자는 정체성 측면에서 도서관 및 인문학의 공리와 본령, 사유적 관점에서 인문학 향연의 합정과 한계, 연계성 측면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인문학 향연의 역설과 딜레마, 대상적 측면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의 불편한 진실, 내용적 측면에서 인문학 향연의 약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인문학 담론, 인문학 향연, 인문학 강좌

ABSTRACT

Humanities is one of the largest buzzword in Korea. Humanities programs are being provided indiscriminately in public authorities, universitie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cultural centers, the media, museums, libraries etc. Among them, the public library is the base camp for spreading and popularizing the humanities. Nevertheless, there is also a critical views for the humanities program of public libr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iscourse of the humanities banquet in theoretical positions and practical aspects. The former discussed the humanities banquet in terms of academic axioms, global macro and micro discourse, social and economic wave, the spirit cultural evolution. The latter discussed the humanities banquet at the axiom and identity of the library and humanities, pitfalls and limitations in terms of reason, paradox and the dilemma on the linkage side, inconvenient truth at the destination aspect, weaknesses and challenges in the content aspect.

Keywords: Public library, Humanities discourse, Humanities banquet, Humanities lecture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논문접수: 2016년 2월 26일 • 최초심사: 2016년 2월 26일 • 게재확정: 2016년 3월 18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1-20,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3.1]

I. 서론

오래 전부터 강단은 인문학 위기, 기초학문 고사를 경고하여 왔다. 그 동인과 현상을 어떻게 재단하든 대학 및 학과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진행 중이다. 그런데 사회에는 인문학 열기가 뜨겁다. 기업가에서 노숙자까지 인문학을 거론한다. 출판시장과 시민사회를 위한 강좌도 인문학이 키워드이다. 유명 대학의 인문학 코스는 문전성시를 이루며, 그 울타리를 넘어 민간단체, 평생학습 및 문화시설,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침내 정부도 인문학, 인문정신을 강조하며 성장동력,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과 연계하고 있다.

인문학의 대중화, 대중인문학을 촉발시킨 장본인으로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지목되고 있다. 그는 아이패드를 출시한 2010년 1월 27일, 애플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교차로를 연상시키는 표지판에 ‘인문학’과 ‘기술’을 명시한 배경화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애플은 늘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존재하여 왔으며,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독서광 빌 게이츠(Bill Gates)는 ‘인문학이 없으면 자신도 컴퓨터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국내 대기업은 인문학 전공자 채용을 늘리고,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도 인문학 강좌에 몰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압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희망의 인문학’이 아닌 ‘절망의 인문학’을 외치고, ‘인문학이 자본에 종속된 상태가 바로 인문학 위기’라고 진단한다(이순녀 2013). 다른 일각에서는 ‘인문학이 가지는 인간적 매력은 척박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단비가 될 것이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찾는 이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찬한다(유선미 2010).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와 열풍, 양단을 질주하는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대체 인문학은 무엇인가? 구두선인가, 금과옥조인가? 왜 대학은 인문학 위기를 절규하는데 사회는 인문학에 열광하는가? 인문학의 대중화 현상인가, 고급인문학에 대한 대중인문학의 도전인가? 그 열풍의 진원지와 속살, 실상과 허상은 무엇인가? 경계를 초월한 인문학이 거리를 확보하고 마침내 도서관에 정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문학 열풍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없는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을 이론적 및 실천적 관점에서 담론화¹⁾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담론(담화 + 논의)은 대화, 언술, 언설로도 지칭된다. 언어학자들은 담론을 ‘한 문장보다 긴 언어의 복잡한 단위’로 정의하고 응집(cohesion), 전방조용(anaphora), 문장간 연결성과 같은 문법적, 음운론적, 의미론적 기준을 이용하여 언어적 규칙성과 관련된 담론 분석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말하기나 글쓰기에서의 정격 표현 외에 다양한 영역(정책, 법률, 예술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유형을 이론적 담론과 실천적 담론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기술을, 후자는 당위에 관한 진술로서 주로 제안, 반론, 충고 등을 말한다.

II. 인문학의 개념적 확대 및 변용

1. 인문학의 기원과 개념적 확대

서양에서 고대 인문학(humanities)은 <표 1>에 집약한 것처럼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 인간다움)²⁾에서 기원하여 로마 공화정 때 키케로(M.T. Cicero, BC 106-43)가 인문교육 이념으로 구체화하면서 자리 잡았다(박찬욱 2013, 14). 그 이후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과 관련된 문사철(문학, 사학, 철학) 중심의 학문영역으로 축소되었다.

<표 1> 서양 인문학의 개념적 및 범주적 발전

시 기	인문학의 발전과 범주
고대	자연철학 · 만물의 공통요소인 아르케(arche)를 물(탈레스), 불(헤라클레이토스), 수(피타고라스), 원자(데모크리토스)로 정의함
	소피스트 · 그리스 철학이 아테네 시대 소피스트들에 의해 철학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됨
	소크라테스 · 윤리학을 핵심으로 삼았으나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의 정의를 찾아내는 것을 최선으로 제시함
	플라톤 · 우리가 살며 느끼는 세계는 모두 모형이고, 실체는 '이デア' 라고 주장함
	아리스토텔레스 · 기원전 334년 아테네 리케이온에서 철학, 즉 학문적 지식을 체계화하여 가르쳤는데 다양한 분과(형이상학,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시학 등)로 나눔
고대 로마-중세	· 로마 공화정시대 키케로에 의해 라틴어 후마니타스가 인문교육 이념으로 구체화되면서 인문학 전형으로 자리 잡음 · 로마인은 과학적 의미의 철학보다 수사학적 전통을 선호하였고, 분야별 교육에 응용함 · 키케로 구상에서 유래한 교육과정인 자유학예라는 이름으로 중세까지 지속됨 · 인문학이 개념적으로 독립된 후에도 철학과 인문학은 외적으로 혼용되었음. 다만 전자에는 학문 일반, 후자에는 인간교육이라는 의미가 추가된 차이가 있음
르네상스 시대 (14-16C)	· 인문학이 오늘날과 같이 인간 관련분야로 축소됨 · 인문주의자들은 후마니타스를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Studia humanitatis, 인문학 연구)로 지칭하면서 그 내용을 문법, 수사학, 시, 역사학, 도덕철학으로 한정함
17세기 이후	· 17세기에는 철학과 결합되어 있던 자연학에서 자연과학이 분리됨 · 1730년경까지 프랑스는 데카르트의 합리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면서 철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명칭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계몽사상가에 의해 과학이 철학에서 분화되기 시작함 · 19세기경 인문학은 세계와 세계 속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자연과학 자료 및 방법에서 분리되면서 현재의 범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그리고 인문학의 현대적 개념을 「Encyclopaedia Britannica」는 “인간 존재와 그들의 문화를 취급하는 또는 인간의 가치와 고유한 정신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도출되는 분석적 및 비판

2) 이 용어를 만든 키케로는 ‘문명을 만드는 인간’이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키케로의 생각과 유사한 ‘이상적 인간’을 지칭하기 위하여 부활시켰다(우기동 201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1호)

적 탐구방법을 다루는 지식분야”로 정의하였다.³⁾ 인터넷 지성집단을 대표하는 Wikipedia에서는 자유학예(liberal arts)⁴⁾와 구별하여 인문학을 ‘주로 비판적 또는 사변적⁵⁾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고대 및 현대 언어, 문학, 철학, 종교, 음악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⁶⁾ 미국 「국립예술인문재단법」(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Act) 952(정의)는 “고대 및 현대 언어, 언어학, 문학, 역사, 법학, 철학, 고고학, 비교종교학, 윤리학, 예술의 역사·비평·이론, 인문학적 콘텐츠 및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특히 다양한 문화유산·전통·역사의 반영과 국민의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인문학의 타당성에 주목한 인간환경에 대한 인문학 연구와 응용”⁷⁾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내포된 공통 키워드는 ‘인간, 문화, 환경, 삶의 조건, 사변적 방법, 비판적 탐구’ 등이다, 즉, 인문학은 ‘인간을 다루고 인간의 삶과 사고를 탐구하는 학문’이며, 그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유의미한 삶’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은 대개 경험적 접근법에 의존하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달리, 사변적·분석적·비판적 방법을 두루 사용한다. 따라서 인문학 범주에는 인류학, 고전학, 법학, 문학, 철학, 역사, 문예학, 윤리학 등이 포함되지만, 더 확대하면 예술·종교·경제·정치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정신과학도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부에는 문사철이 존재한다. 문학은 상상력을 다루고, 역사는 사건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며, 철학은 모든 대상의 근원과 의미를 따지는 학문으로서 비판적 사고의 원천이다.

요컨대 인문학은 인간과 삶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문적 소양은 인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total competency), 즉 지적 역량(독해력), 정서적 역량(공감과 소통능력), 양자를 아우르는 직관적 역량(논리성과 판단력)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공재인 동시에 문화인프라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지적 역량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소통능력과 정서적 역량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독서·문화·평생학습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주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총체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

3) Encyclopaedia Britannica, “Humanities,” <<http://premium.britannica.co.kr>> [cited 2015. 10. 7].

4) 일반적 지식 및 사고체계와 지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문이다. 직역하면 ‘자유스러운 예술’ 이고, 실제 통용되는 의미는 ‘필수 교양학’이다. 여기에 속하는 5세기경 학문분야는 문법, 수사학, 논리, 수학, 천문학, 음악, 지질학 등이었다. <http://en.wikipedia.org/wiki/Liberal_arts_education> [cited 2015. 10. 10].

5)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철학적 함의는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순수 논리적 사고로 현실이나 사물을 인식하려는 행위로서 직관적 인식, 지적 직관’을 지칭한다. 가령 과학자는 실험을 통한 경험에 근거하여 증명하고 인문학자는 자신의 순수한 이성에 의지하여 인식·설명한다.

6) Wikipedia, “Humanities,” <<http://en.wikipedia.org/wiki/Humanities>> [cited 2015. 10. 10].

7) <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Legislation.pdf> [cited 2015. 10. 10].

2. 인문학의 재해석과 사회적 변용

고전적 인문학이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었다면, 현대적 인문학은 다의적 및 다차원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문사철 중심의 인문학이 울타리 내에서 허우적거리는 고답적 상황을 타개하려면 시대적 요구를 가미한 재해석과 변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된 최근 주장을 발췌·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즉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람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 주고 동시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준다.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이다. 경쟁에서 이기고 돈을 벌고 생존하는데 실용적인 지식이나 수단에 치중하는 자기개발서와 구별된다(신호주 2014).

2. 인문학은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이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룬다면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고 사람의 표현활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다 ... 안으로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고 반성하는 성찰과 자각의 힘을 길러주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처럼 인문학은 생각과 정신의 문제이다(김정화 2015).

3.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의미 일반을 성찰하는 학문이다. 그것은 ... 삶의 역사를 반성하고 그에 따라 성찰된 미래를 현재화하는 학문이다 ... 그러기에 인문학적 현재는 다만 시간적인 지금이 아니라 공간적인 여기와 시간적인 지금이면서 동시에 과거와 미래가 현재화하는 터전이며 우리 삶이 결단되는 현재이다. 그러기에 인문학은 이러한 의미의 현재를 떠나서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신승환 2008).

4. 인문학(人文學). 인(人)은 부침이 많은 이 땅에서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게 한다. 또한 문(文)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나 혹은 우리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후대가 살아갈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학(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다. 문제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들뢰즈[Deleuze] 식으로 말하자면, 과거를 다시 당겨오고(retentions) 미래를 미리 당겨와(proentions) 지금의 나,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다(이우환 2014).

요컨대 인문학의 본질과 존재이유는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학문’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대상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현상을 생각하는 통찰력’으로서 문사철을 초월해야 한다. 시제는 ‘과거를 바탕으로 성찰된 미래를 현재화’해야 하며, 궁극적 목적은 ‘현재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용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문사철 중심의 원리주의에 안주하던 고답적 인문학이 시공간적 확장, 다양한 학문적 통섭과 융합, 사회문화적 유용성을 요구하는 시대사조에 편승하여 상아탑을 넘어 대중사회로 진입·활보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인문학 앞에 주제나 대상을 선치시킨 소위 ‘복지인문학, 김치인문학, 건축인문학, 힐링인문학, 통일인문학, 음식인문학, 창조인문학, 디지털인문학’ 등이다. 심지어 인문학의 학문적 요체에 속하는 ‘고전’과 ‘역사’를 각각 앞세운 ‘고전인문학’, ‘역사인문학’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공간을 중심으로 ‘동네인문학, 점심인문학, 생활 속의 인문학, 도시인문학, 거리인문학’도 전개되고 있다.

인문학은 문사철 기초지식을 전제로 다양한 학문분야 및 적용대상을 줄기로 삼아 인문학적 소양으로 개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많은 인문학 프로그램은 현실과 밀착된 소비현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가면을 쓰고 전국을 배회하는 유령, 변죽을 울리는 신변잡기, 지적 대화가 결여된 열풍,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소위 돈오점수(頓悟漸修)는 없고 돈오돈수(頓悟頓修)만 횡행하는 형국이다.⁸⁾ 따라서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은 백화점, 방송국, 지자체, 종교계 등의 인문학 강좌와 차별되어야 한다.

Ⅲ.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의 이론적 담론

1. 인문학 강좌의 배경과 동인

도서관 인문학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공공도서관은 대중사회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도서관 인문학 강좌가 새삼스럽게 주목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배경과 동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는 인간 내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문답을 사유하는 활동이다. 인간 그 자체나 인간적 삶은 정신과 가치, 이성과 감정, 학습과 경험, 상상과 창조, 개인과 집단, 문화와 문명 등이 중층적으로 연계·교집되어 있어 인문학이 그것을 해명하는데 적격이다. 표피적 현상의 파악을 거부하는 대신에 다차원적 행간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공재인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지적 문화수준 제고, 독서생활화 촉진, 평생학습사회 조성, 민주시민성 함양, 인문정신문화 확산 등은 인문학적 강좌의 당위와 중요성을 대변한다.

8) 불교 수행체계에서 대표적인 쟁점이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다. 스님 성철이 주장한 전자는 한 순간에 깨달아 더 이상 수행이 불필요한 경지를 말하는 반면에 보조국사 지눌이 주장한 후자는 깨달은 후에도 계속 수행·정진해야 진여(깨달음 세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미망과 깨달음이 순간적인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내지 입장의 차이를 대표하는 수행이론이다.

둘째, 거대 담론적 맥락에서 보면 글로벌화 및 동시성 시대에 편승하여 인간과 사회의 관계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전문지식으로 다수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지식정보를 동원하여 다차원 내지 입체적으로 접근·분석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지식정보의 조합 내지 연결성을 강조하고 행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을 둘러싼 우주, 자연, 생사, 이념, 종교 등과 같은 근원적 주제는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 암묵지(tacit knowledge)⁹⁾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장치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도서관은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문학 강좌의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미시적 담론으로 보면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 이유를 인문학에서 찾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자아탐구, 자녀교육, 취업문제, 노후보장, 행복한 인생, 원만한 인간관계 등에 대한 인문학적 갈증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위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원초적 이해, 인간에 대한 외경심, 삶을 반추하면서 근원을 살피려는 욕구,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자존감 회복 등은 독서와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인문학적 호수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 길목에 위치하는 도서관의 인문학적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경제적 과장의 측면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인문학 열풍의 결정적 계기로 보기도 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고, 인문학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두뇌한국(BK) 21’ 사업은 대학의 인문학 위기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2000년 후반에 ‘인문한국(HK) 지원사업’¹⁰⁾으로 확대·개편되었다. 현 정부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의 대중화 정책 주력하고 있다.¹¹⁾ 한편, 캠퍼스 밖에서는 철학아카데미, 지행네트워크, 다중지성의 정원, 동인문화원, 대안연구공동체, 독서대학 르네 2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과 같은 인문학습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대중지성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주목한 도서관계도 ‘인문학’을 선치시킨 각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설·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정신문화적 진화의 측면에서 국내 현주소와 연계하면 인문학이 절실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도 압축성장에 따른 외형적 통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신문화적

9) 헝가리 출신의 영구 물리화학자 겸 철학자 폴라니(M. Polanyi)가 조어한 암묵지(暗默知)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체화되어 있음에도 공식화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말한다. 예컨대 육감, 노하우, 아이디어, 경험 등을 말하며 주관적이고 내재적이다. 그 반대인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형식을 갖추거나 빌려 표현한 지식(문법적 진술, 수학적 표현, 규격, 매뉴얼 등)을 의미한다.

10) HK사업은 인문학 후속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타학문과의 융합 속에서 발전시키자는 의도를 갖고 있다. 매년 300억씩 10년 계획으로 시행되었고, 대학 내 연구소를 기반으로 연구비를 신청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1) 현 정부의 인문학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정신문화 대중화 및 세계화’에 집중하고 있고, 교육부는 인문학을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 창출의 근원으로 간주하여 순수인문학 지원정책에 비중을 두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종 학문간 융합(인문학+기술산업)을 촉진하여 미래 소프트웨어융합 인재 양성에 치중하고 있다.

지표는 미숙아 상태이다. 부동산 투기, 사교육 열풍, 무질서, 편법과 탈법의 난무, 개인적 및 집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이 이를 대변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 모두가 정신문화적 자양분인 인문교양의 결핍이 초래하는 부작용이다. 도처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적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유¹²⁾와 이해가 절실하다. 이에 인문한국을 표방한 정부는 도서관을 인문정신문화의 거점으로 지목·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다.

요컨대 학문적 본령, 지구촌의 거대적 및 미시적 담론, 사회경제적 파장, 정신문화적 진화의 측면이 상호작용하여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고도성장에 따른 물질문명적 풍요와 정신문화적 빈곤의 심각한 격차가 표출시키는 무질서, 부정부패,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등 후진국형 병리현상을 해소하려면 인문정신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돌파구를 인문학 확산 및 인문정신 강화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신드롬에 따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¹³⁾가 도서관계에 유입되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2. 인문학 강좌의 지형과 구조

도서관은 인문정신문화의 베이스캠프이다. 이 명제가 정당하려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존재이유, 법리적 목적과 업무, 사회문화적 역할과 기대효과를 인문학 내지 인문정신문화 측면에서 해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도서관의 존재감과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그 파급효과가 인문학적 가치로 발현될 수 있어야 도서관이 인문학 수급 및 확산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먼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은 지식정보센터인 동시에 지식문화유산기관이다. 전자는 인류의 정신세계와 지적 편편을 제품화한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당대에 제공함으로써 정당화되는 본질적 정체성이며, 후자는 지속적으로 개발된 장서를 보존·전수하여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할 때 공인되는 파생적 정체성이다. 이러한 양대 정체성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문화원(센터), 평생

12) 일반적으로 인문학적 사유의 구성요소는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자아 정체성, 외부조건에 대해 독자성을 확립하는 정신적 주체성, 자신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연대적 책임감과 비판정신, 윤리와 사랑이다. 그 사유는 대상에 대한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 인간을 개입시킨 체험을 통하여 배양된다. 따라서 인문학적 사유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객관적 인식계가 아니라 주관적 작용함으로써 조건과 결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소위 주관적 인식의 세계이다.

13) 이 용어는 경제성장 우선론을 주장할 때 자주 동원된다. 선도부문(대기업, 고소득층 등)에서 투자나 성과가 증가하면 그 효과가 후발·낙후부문(중소 및 연관기업, 저소득층 등)에 유입된다는 주장으로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반대로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선도부문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후발낙후부문에 직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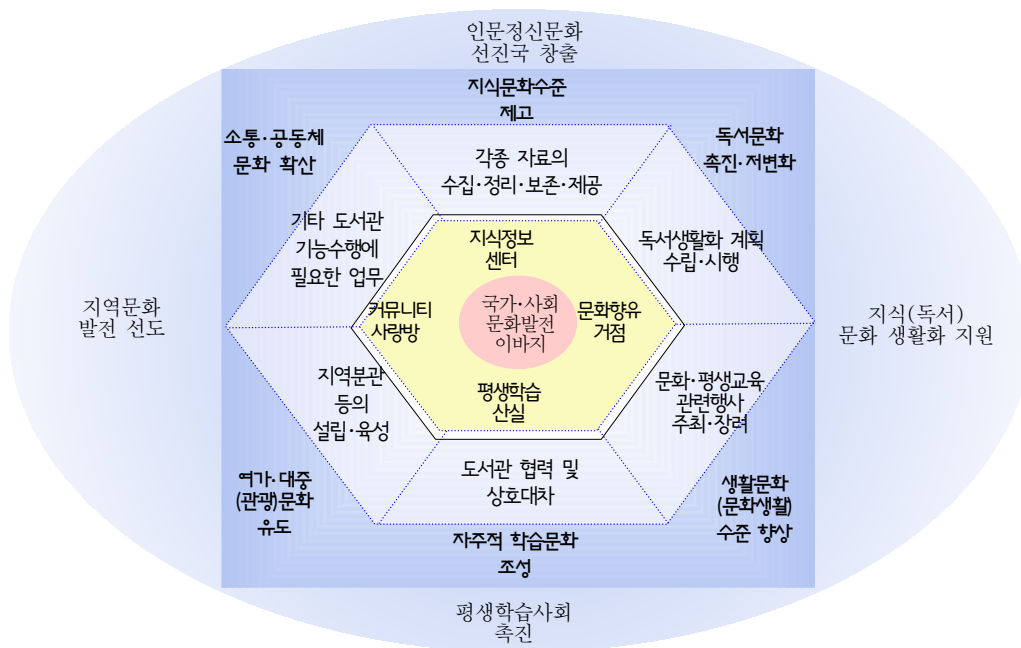
학습관 등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의 법리적 목적과 업무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인 「도서관법」(법률 제13222호) 제1조는 ‘...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도서관 설립·운영의 목적은 실정법 제2조 제1호에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제28조 각호는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총 7가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실시,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분관 등의 설립·육성, 기타 공공도서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제공, 독서계획의 수립·시행, 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서비스, 도서관 협력과 상호대차 등을 통하여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은 수행업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 업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스펙트럼을 연계하여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서개발과 제공서비스, 독서생활화 계획과 실시, 도서관 협력 및 상호대차, 분관 설립·운영은 지식문화(지식정보 습득, 인문정신문화 강화, 교양수준 제고, 민주시민성 함양과 고품격 사회 구현), 독서문화(독서자료 활용, 대출열람서비스, 독서지도, 독서력 증대, 책 읽기 운동 등을 통한 독서도시 브랜드화), 학습문화(인터넷 및 정보검색 지원, 도서관 이용 지원, 취업 및 창업정보 제공, 숙제지원서비스, 보고서작성 지원서비스 등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등)와 직결되므로 이들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지원한다. 둘째, 각종 프로그램서비스는 독서문화(동아리, 토론회 등을 통한 독서력 증대 및 분위기 확산), 학습문화(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의 생활화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 생활문화(취미, 오락, 여가 등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생활문화 향유권 보장)와 밀접하므로 이를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 결과가 지식문화로 확산된다. 그 외에 강연회,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는 지식문화 발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관광문화 발굴, 고증과 복원,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다른 문화 및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식·독서·생활문화를 진작시키고 여가(또는 탐방)문화 발전을 지원한다(윤희운 2015, 9-17).

요컨대 모든 공공도서관은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4대 핵심기능(지식정보센터, 문화향유 거점, 평생학습 산실, 커뮤니티 사랑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6대 법정 업무는 다양한 지역문화(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

문화,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그 중장기 외부효과가 지식(독서)문화 생활화를 지원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촉진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인문정신문화 선진국을 창출하는데 일조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의 총체적 지형과 연계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으며, 이를 등식화한 ‘도서관 = 인문정신문화의 베이스캠프’는 정당하다.



<그림 1>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총체적 지형과 연계구조

IV.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실천적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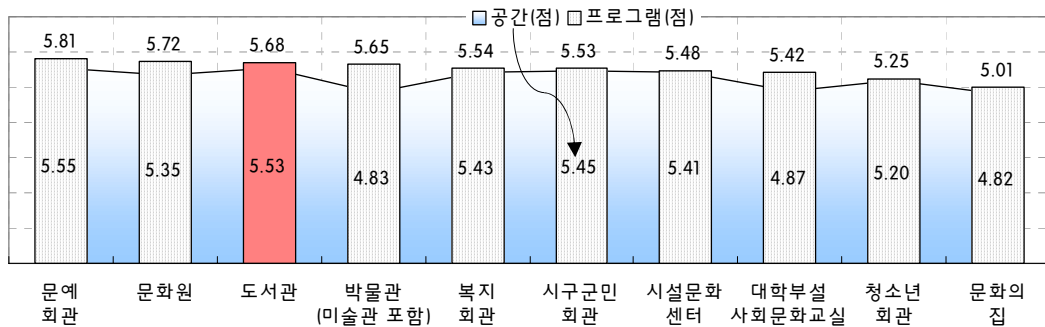
1. 인문학 향연의 실체와 현주소

도서관은 국가 및 사회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이다. 다른 문화시설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자료대출 및 열람서비스, 독서지도 및 정보검색 지원, 다양한 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서비스, 각종 행사의 주최 및 장려, 소통공간 제공 등이 이를 대변한다. 모두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대중)문화, 여가·탐방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며, 그 합집합이 인문정신문화로 수렴된다.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인문정신문화를 확산시키는 베이스캠프로 간주되는 당위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발췌한 <표 2>가 방증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x). 즉, 행정기관인 주민자치센터와 민간공연장을 제외하면 공공도서관의 연평균 이용률이 문화시설 중에서 가장 높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7점 기준)를 비교한 <그림 2>에서 공간은 2위(5.68점), 프로그램은 3위(5.68점)로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95-96).

<표 2> 각종 지역문화예술 공간의 연도별 이용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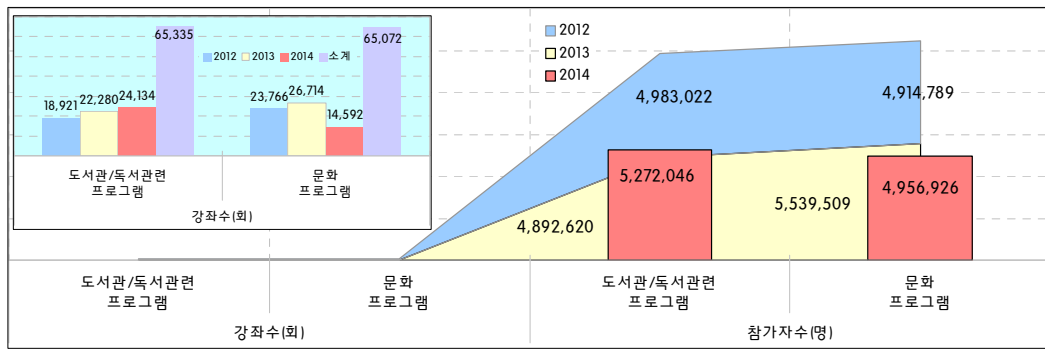
문화시설	연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평균	이용률(평균) 비교
시군구민회관		9.6	11.2	12.0	11.5	8.0	8.8	10.18	
문예회관		11.6	11.3	11.5	11.5	6.6	6.6	9.85	
복지회관		5.5	7.5	7.7	11.4	4.6	4.5	6.87	
청소년회관		4.4	3.6	4.4	4.2	5.1	2.2	3.98	
문화원		2.4	2.1	2.1	2.1	2.7	1.2	2.10	
도서관		16.0	12.8	16.2	20.5	12.8	10.4	14.78	
박물관(미술관 포함)		11.5	12.3	12.1	14.8	9.3	16.6	12.77	
문화의 집		-	-	-	1.2	1.0	0.4	0.87	
대학부설사회문화교실		1.8	1.4	1.7	1.7	1.4	1.4	1.57	
사설문화센터		4.6	4.6	5.5	6.0	5.3	7.7	5.62	
주민자치센터		-	-	-	-	9.2	33.9	-	
민간공연장		-	-	-	-	8.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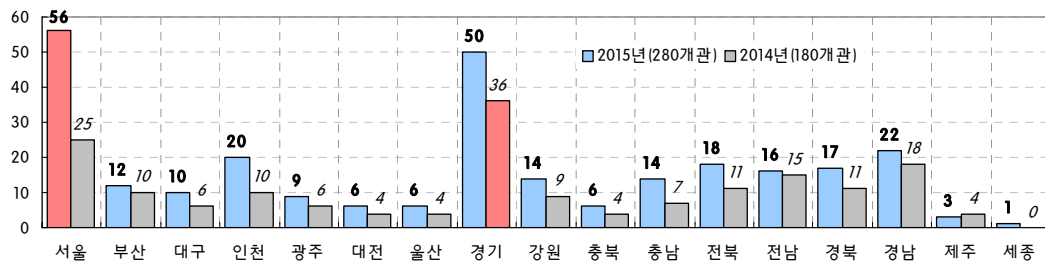
<그림 2> 각종 지역문화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 비교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향연과 밀접한 각종 프로그램서비스도 매우 활발하다. 국가도서관통계사이트를 이용하여 최근 3년간(2012-2014) 도서관·독서관련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의 강좌수 및 참가자수를 집계한 <그림 3>을 보면 누적 강좌수는 전자가 65,335회, 후자가 65,072회이며, 누적 참가자수는 3천만명을 상회함으로써 연간 1천만명 이상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여기에 양대 프로그램의 1회성 강좌수(93,794회) 및 참가자수(33,411,465명)를 합산하면 연평균 강좌수는 74,734회, 참가자수는 2,13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약 41.8%가 매년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서비스 실적(2012-2014)



〈그림 4〉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참여관(2014-2015)

마지막으로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인문학’을 주제로 내세운 각종 인문학 향연을 펼치고 있다. 그 유형은 개별관이 자체적으로 기획·진행하는 인문학 및 관련프로그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다시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인문학 단체 등)¹⁴과 협업형태로 진행되는 사례로 나눌 수 있으며, 대체로 강좌중심이다. 반면에 전국적 사업인 후자는 2013년 시범사업(서울을 제외한 전국 121개관 참여)에 이어 2014년 본격사업에 <그림 4>와 같이 180개관(강연 723회, 탐방 570회, 후속모임 245회 등 실시회수 총 1,538회, 참가인원 총 48,193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280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연·탐방·후속모임의 결합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인문학과 지역 문화, 책과 길, 저자와 독자, 도서관과 지역주민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미있고 유

14) 산학협업형 인문학 강좌는 2013년부터 수성도서관과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가 진행하는 ‘대구대와 함께하는 희망의 인문학’ 강좌가 대표적이다. 기획·운영 주체가 교육청과 연구기관이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사례로는 2013년 11월에 시작된 서울시교육청과 백상경제연구원의 ‘고인돌 프로그램’이 있다.

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문학을 확산시키고, 지역도서관을 인문학 대중화의 거점으로 발전 시키며, 책·현장·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장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대중의 연평균 이용률과 공간·프로그램 만족도, 도서관·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강좌수 및 참가자수, 도서관 자체의 인문학 및 관련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참여 등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와 인문학의 연결고리, 인문학 대중화의 거점, 인문정신문화 확산의 마중물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배제한 대중인문학의 미래 및 인문정신의 대중화는 상상하기 어렵다.

2. 인문학 향연의 본령과 과제

도서관은 대중인문학의 텃밭이다.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은 불특정 대중의 인문학적 갈증을 해소하는 식수이며, 인문학적 사유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한다. 그런데 작가 임무영은 인문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문학은 도서관에 있지 않다. 여러분이 인문학이고, 여러분의 삶이 곧 인문학 현장이다’¹⁵⁾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또한 인문학자 김경집은 도서관 인문학을, 경향신문 문화에디터 조운찬은 대중인문학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1. 이전의 도서관이 책의 수장과 열람 등 기초적인 업무에 주력했던 반면, 요즘은 대시민서비스의 활동이 증가했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대부분의 강좌가 마치 ‘우리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열된 느낌을 준다... 아직도 대부분 나열식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인문학강좌의 후속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왜 인문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따르지 않고 있다. 그저 적당한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 이제는 얇이 삶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김경집 2015, 2).

2. 우리 사회의 대중인문학이 인문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사진 찍는 법, 허브 키우는 법 등 백화점 문화강좌에 어울릴 법한 강좌를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내놓고 있다... 사회에서 유행한다는 인문학은 기실 ‘실용 인문학’이다. 실용 인문학은 인문학의 외형을 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자기계발 공부와 다르지 않다... 이런 인문학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실용의 강조는 결국 인문학의 본령을 해친다(조운찬 2014).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체성 측면에서 도서관 및 인문학의 공리와

15) 임무영, “반갑다, 인문학,”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7580> [인용 2015. 10. 20].

본령, 사유적 관점에서 인문학 향연의 함정과 한계, 연계성 측면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인문학 향연의 역설과 딜레마, 대상적 측면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의 불편한 진실, 내용적 측면에서 인문학 향연의 약점과 보완을 담론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려면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다양한 사유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해야 삶에 대한 성찰, 가차 없는 비판적 의식, 초월적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정체성 측면에서는 인문학 본령에 대한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인문학의 본령은 대중의 인문학적 사유 폭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주체적 인문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반면에 모든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은 지식정보센터이다. 이를 기반으로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공리가 지역사회의 지적 갈증과 수요, 문화생활적 기대와 욕구, 평생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식정보서비스, 문화·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시설·공간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인문학의 본령에 충실한 인문학 향연을 베포려면 인문학 콘텐츠를 충실하게 개발·보존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록 자료구입비 및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이 결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정체성에 소홀한 채 인문학 대중화라는 시류에 편승하는 행태는 인문학 본령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4년 11월에 개최된 ‘도서관인문학포럼’에서 우웅순이 ‘공공도서관이 한국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가치를 보여줘야 하며, 자체적으로 인문학적 콘텐츠를 구축해야 미래가 있다’¹⁶⁾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 콘텐츠 부실, 인문학 강좌 및 관련장서의 연계성 부족을 방치한 채 인지도가 높은 강사(작가, 저술가, 인문학자, 연예인, 향토사학자 등)를 섭외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문화유적·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전부로 인식한다면 착각이다. 강좌와 탐방은 인문학적 사유를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다. 도서관에 비축된 다양한 인문콘텐츠를 독서활동 및 평생학습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대중의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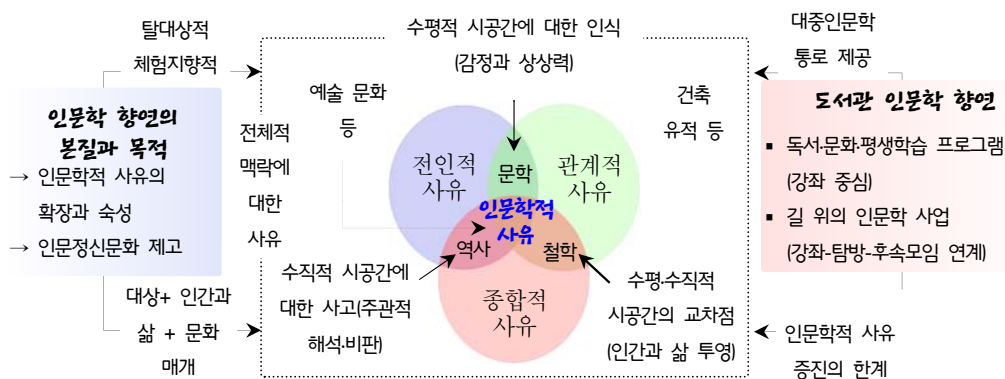
둘째, 사유적 관점에서는 공공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함정과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인문학을 대변하는 문학은 수평적 시공간에 대한 인식, 사학은 선후 내지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수직적 시공간에 대한 사고를, 철학은 수평적 및 수직적 시공간의 교차점에 ‘인간과 삶’을 위치시키는 학문이다. 이들은 인간의 모든 인식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인적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 문학은 감정과 상상력에 의해 형성되고, 역사는 주관적 해석과 비판을 거쳐 성립되며, 철학은 근원적 성찰과 직관을 통하여 내재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문학적 사유는 대상에 대한 이성적 사유¹⁷⁾가 아니라 관계적 사유이다. 즉, 사유의 지점을 특정 대상

16)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부흥 어떻게,” <<http://m-news.korea.com/view/normalview.asp?cid=EN&scid=EN1&sn=52302446>> [인용 2015. 11. 5].

17) 이성적 사유는 두뇌를 이용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인식지향적 또는 순수(또는 경험)논리적 사고, 한정된 대상

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인간 또는 자신의 삶을 개입시킨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유하고 진리를 추구한다. 부연하면 인문학은 인간(또는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이므로 대상 자체보다 삶과 연관된 맥락을 성찰하는 사유이다. 그리고 대상 자체의 분석과 객관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초월하여 인간이 투영되고 문화가 매개되는 맥락 전체에 대한 사유를 요구한다. 따라서 인문학적 사유는 탈대상적이고 체험지향적이다. 대상에 대한 단편적 인식이 아니라 대상과 연계된 삶의 지평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요구하며 문화가 수반되거나 매개되는 종합적 사유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자체적 인문학 프로그램은 강좌 비중이 매우 높고, 협업형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향연은 ‘강연·탐방·후속모임의 결합형태’이지만 참가비 지불의지가 있는 수강생이 강좌를 듣고 탐방장소를 체험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을 뿐 자발적 후속모임을 통한 토론과 성찰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다. 요컨대 작금의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은 <그림 5>와 같이 대중인문학의 통로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인문학의 지향성인 전인적, 관계적, 종합적 사유를 증진시키거나 여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탈대상적, 체험지향적, 인간과 문화가 매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한다.

셋째, 연계성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과 인문학 향연이 역설과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다. 모든 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독서·문화·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는 독서 생활화, 자주적 평생학습 촉진, 문화생활 향유, 민주시민성 함양,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간다운 삶과 연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권역 내의 대중에게 제공하는 독서회 운영과 독서프로그램,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강연회, 전시·공연 등은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하며, 그 중장기 외부효과가 인문학의 본령에 도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장서 및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약한 ‘인문학’을



<그림 5>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기여와 한계

만을 탐구하는 대상적 사유,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에 치중하는 분석적 사고를 특징으로 한다. 가령 수학은 수와 그 현상만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을 뿐, 그것을 초월한 영역과 연계하여 사유하지 않는다.

내세운 강좌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별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 문화향유 거점, 평생학습 산실, 대중인문학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최상위 정체성은 지역문화기반시설로 수렴되어야 함에도 일각에서 평생학습시설로 재단하는, 소위 편향동화(biased assimilation)¹⁸⁾와 동일한 이치이다. 이러한 역설은 각종 프로그램과 인문학 향연의 궁극적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조장한다. 게다가 독서프로그램을 인문학에서 분리할 경우에는 트릴레마(trilemma)로 이어진다. 이러한 분별적 인식은 불가의 유명한 법어인 일수사건(一水四見), 즉 물을 사람은 식수로 생각하고, 물고기에게는 집이며, 천상의 존재는 보석으로, 지옥중생은 피고름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일수사건에서 유래된 화엄경의 계송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복잡한 현상계에 대한 인식은 오직 자신의 몫’이라는 상징적 은유가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각종 프로그램과 시류를 반영한 인문학 향연은 모두 인문학적 사유와 삶을 위한 ‘하이부동’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인문학 콘텐츠의 충실화를 통한 독서생활화 및 평생학습의 촉진을 출발점으로 삼고 각종 인문학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인문정신 강화를 위한 인문학 향연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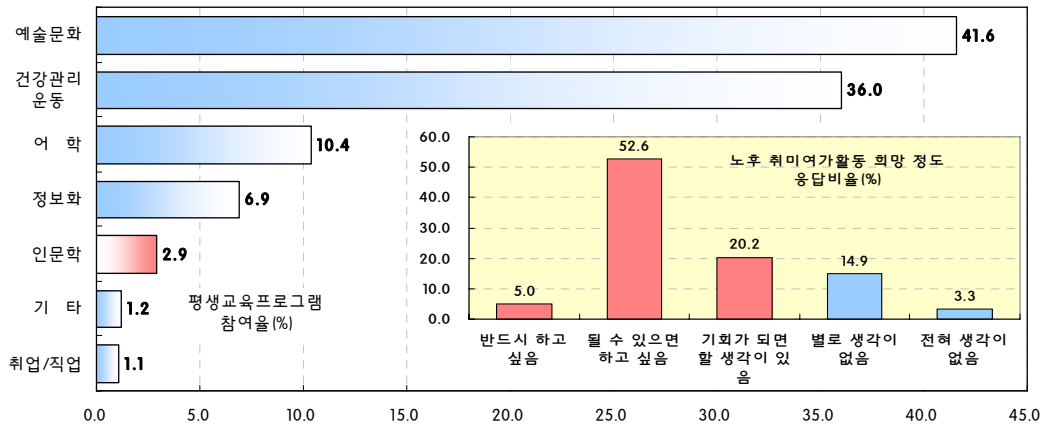
넷째, 대상적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에 불편한 진실이 내재되어 있다. 대다수 도서관이 제공하는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주요 대상이 일반대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반면에 인문학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경우, 2014년에는 전체 868개관 가운데 약 20.7%(180개관)가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전체 930개관 중 약 30.1%(280개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를 보면 절대 다수가 일반시민이며, 대중인문학의 최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다¹⁹⁾. 그 가운데 특히 노인의 경우, 한국이 고령화 사회²⁰⁾를 넘어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기간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다는 예측,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발췌·분석한 <그림 6>을 보면 노인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율이 2.9%로 극히 낮은 반면에 노후(여생) 취미여가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77.8%로 매우 높게

18) 경제학자 슌스타인(C. Sunstein)이 제시한 용어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고, 자신과 동일한 주장은 현명하고 논리적인 것으로 수용하여 더욱 강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19) 2014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참가자 중 설문에 응한 총 20,974명의 성별은 여성이 평균 72%, 남성이 2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22%, 20-50대 65%, 60대 이상 13%로 나타났다.

20) 일반적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상회하면 초고령 사회로 지칭한다. 국내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이어,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기간이 일본은 12년, 미국은 16년, 프랑스는 40년이 걸리는 반면에 한국은 7년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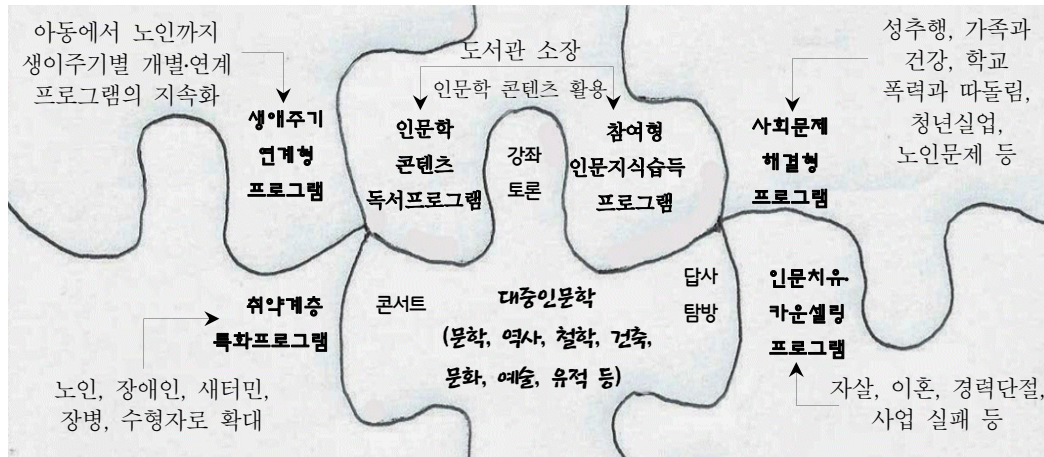
나타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4, 444-476).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대중인문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노인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다섯째, 내용적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이 대중인문학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려면 현실적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인문학의 본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유의 길과 유의미한 통찰을 제시할 뿐, 그것을 소화하는 문제는 대중의 몫이다. 인문학은 자기성찰 도구이며, 독서와 탐구를 통하여 끊임없는 질문하는 인문정신을 강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인문진흥 정책은 주로 저명인사 중심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그것도 단발성 강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인문학적 사고와 실천으로 시민들의 생활이나 삶을 변화시키는데 역부족이다’는 비판,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소외계층 및 일반시민을 위한 인문강좌, 대학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센터의 인문강좌 등과 차별성이 약하다는 지적(박찬욱 2013, 38-3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는 고난도 철학 및 고전 등의 고답준론, 신변잡기로 가득찬 언어적 유희, 편향성 이데올로기의 설파, 시중의 관광상품과 유사한 답사와 탐방 등을 경계해야 한다. 대중이 도서관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여 공감하고 탐방하더라도 스스로 인문독서를 통한 현실적 문제를 사유·비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인문학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은 〈그림 7〉처럼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도서관이 소장한 인문학 콘텐츠의 독서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회문제(성추행, 가족과 건강, 학교 폭력과 따돌림,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의 인문학적 해결형 프로그램,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인문지식 습득프로그램(도서관 시설과 연계한 정보기술 응용, 인문지식 체험실 운영), 인문치유 및 카운슬링(자살, 이혼, 경력단

절, 사업 실패 등) 프로그램,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새터민, 장애인, 수형자) 특화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보장하여 내적 충실화 및 외연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바람직한 퍼즐 모형

V. 요약 및 결론

도처에서 인문학 열기가 뜨겁다. 대학의 인문학은 가사상태를 넘어 폐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유령은 대학의 망토를 두르고 전국을 배회하고 있다. 이러한 역설이 인문학의 대중화인지, 신기루 같은 허상인지를 불문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수급되는 문화적 현상이라는 사실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매스컴,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공간이 공공도서관인데 인문학 확산 및 대중화의 거점으로 지목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담론화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담론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자료의 수집·보존·제공, 독서계획의 수립·시행, 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서비스, 도서관 협력과 상호대차 등을 통하여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그 중장기 외부효과가 지식(독서)문화 생활화, 평생학습사회 촉진,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인문한국을 창출하는데 일조하므로 '공공도서관은 인문정신문화의 베이스캠프'이다. 또한 대중의 연평균 도서관 이용률과 공간·프로그램 만족도, 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의 강좌수 및 참가자수, 자체의 인문학 및 관련프로그램,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참여 등을 감안할 때,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인문학의 연결고리, 인문학 대중화의 거점, 인문정신문화 확산의 마중물이다.

다음으로 실천적 담론 차원에서는 첫째, 인문학 본령에 대한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기여도가 낮으므로 다양한 인문콘텐츠의 개발·비축을 전제로 독서활동 및 평생학습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대중의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은 대중인문학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인문학의 본질적 지향성인 전인적, 관계적, 종합적 사유를 증진시키거나 여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탈대상적, 체험지향적, 인간과 문화가 매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과 시류를 반영한 사업은 인문학적 사유와 삶을 위한 ‘화이부동’ 프로그램이므로 인문학 콘텐츠의 충실화에 기반한 독서생활화 및 평생학습의 촉진을 출발점으로 삼고 각종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인문학 향연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이 대중인문학을 선도하려면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사회문제의 인문학적 해결형 프로그램, 참여형 인문지식 습득프로그램, 인문치유 및 카운슬링프로그램, 취약계층 특화프로그램, 생애주기별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보강하여 내적 충실화 및 외연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은 다른 공급주체에서 표출되는 함정, 즉, 상품화와 경제적 탐욕이 추구하는 상업주의, 감성적 언어로 포장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일시적 공감에 방점을 두는 감상주의, 그리고 사회적 규칙과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가부장적 계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지 않으면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에도 유명강사에 의존하는 강좌 중심, 상업주의 거품, 행사위주 내지 관광상품화 등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만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문학적 사유와 통찰이 배제된 실천으로 이어져 어설픈 초상을 빚어낼 것이며, 그 부메랑 효과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및 존재이유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집. 2015. 도서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오늘의 도서관』, 237: 2-3.
 김정화. 2015. 왜 인문학인가. 『남해타임즈』, 11월 11일. <<http://www.n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40>> [인용 2015. 11. 5].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박찬욱. 2013. 『인문학 융합의 현상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신승환. 2008. 서평: 인문학의 현재와 새로움을 위하여. 『신학과 철학』, 13: 285-292.
- 신호주. 2014. 왜 인문학인가. 『파이낸셜 뉴스』. 10월 24일. <<http://www.fnnews.com/news/201407291658510738>> [인용 2015. 11. 5].
- 우기동. 2013. 후마니타스칼리지 운영사례를 통한 평생학습 신모델 정책제안. 『서울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워크숍』. 5월 1일.
- 유선미. 2010.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이해 ... 인문학에서 '길' 찾다. *Wealth Management*. <http://www.wealthm.co.kr/wm_view/wmview.asp?idx=2636> [인용 2015. 11. 5].
- 윤희윤. 2015.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20.
- 이순녀. 2013. 인문학을 경제활성화 도구로 전락시켜 위기 심화. 『서울신문』. 9월 23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12022007>> [인용 2015. 11. 5].
- 이우환. 2014. 인문학, 너 누구니?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기조 강연』. 4월 30일. <http://www.space-epy.kr/?mid=Photo_Gallery&document_srl=3141&listStyle=viewer> [인용 2015. 11. 8].
- 조운찬. 2015. 왜 사회가 인문학을 원하는가? <<http://sidolkhan.tistory.com/m/post/163#>>. [인용 2015. 11. 10].
- 한국도서관협회. 2014.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결과보고서』. 서울: 동협회.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4. *Report of Humanities Operation on the Road in Public Libraries*. Seoul: KLA.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Cultural Enjoyment Survey*. Seoul: The Ministr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Seoul: The Ministry.
- Park, Chan Wook. 2013. *Diagnostic Symptoms of the Humanities Fusion and Policy Directions*. Seoul: the Korean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 Shin, Syng Hwan(2008). Book Review: For the Present and the Newness of the Humanities. *Theology and Philosophy*, 13: 285-292.
- Yoon, Hee Yoon. 2015. "The Contribution Strategy of Public Library to Local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1-20.